

“여자야구 + 소프트볼 연합팀 구성…목표는 4강 이상”

2016기장여자야구월드컵 앞둔 WBAK 정진구 회장

큰볼도 작은 볼씨에서 시작되는 법이다. 한국여자야구연맹(WBAK) 정진구 회장은 그 볼씨를 피우고, 키우는 사람에 해당한다. 여자야구 불모지였던 이 땅에 정 회장과 이광환 KBO육성위원장이 의기투합하며 2007년 WBAK가 설립됐다. 그리고 10년, 한국은 부산시 기장군에서 'WBSC(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2016여자야구월드컵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대회 개막을 사흘 앞둔 31일 기장으로 내려간 정 회장은 “직함이 회장이지만 대회 로고가 찍힌 쇼퍼백 제작까지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훈련 여건 위해서 연합팀 구성
강팀 쿠바 꺾어야 상위 라운드
대표팀 이광환 감독을 믿는다

오규석 기장군수의 적극 지원
SBS 스포츠 채널에서 생중계
여자야구 관심 더 높아졌으면

-대회 준비는 잘 됐나?

“1년 전부터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준비해왔다. 큰 준비는 다 됐다. 시설은 다 괜찮은데 날씨가 걱적이다. 2일 전 야채, 3일 개막전인데 비가 예보됐다. 원래 야외에서 하려고 했는데 실내에서 여는 쪽으로도 준비하고 있다. 개막전 때 비를 대비해 우산, 의라도 준비해 강행하려고 한다. 대회 일정은 혹시 비가 내려도 예비일(6일)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다.”

-한국 여자야구의 현실이 열악하고, 역사도 짧운데 세계대회를 개최한다.
“환경이 좋지 못하지만 이런 큰 대회를 치름으로써 단기간에 여자야구를

알릴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개최 이유였다. 마침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을 준비하던 기장군과 얘기가 잘 됐다. 4년 전부터 MOU(양해각서) 맺고 유치신청을 했다. ‘될까?’ 했는데 됐다. 여자야구월드컵은 2년마다 여는데 아시아와 남미가 돌아가며 개최했다. 2년 전, 일본에서 개최해 남미 차례일 수 있었는데 WBSC가 한국이 낫다고 본 것 같다.”

-기장군의 도움이 컸겠다.

“오규석 군수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야구장(현대차 드림볼 파크)도 와 보면 알겠지만 4면으로 만들었는데 원래 사회인야구용 구장이다. 그런데 세계대회를 유치하려다보니 WBSC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많았다. 그런 것에 대해 실무팀이 주문하는 대로 오 군수가 다 바꿔줬다. 여자야구 기장군팀을 만들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야구에 관심이 많은 분이다.”

-대회를 치를 인프라는 괜찮나?

“기장에 호텔이 하나 있는데 지역경제에 도움을 줘야 하니까 한국대표팀이 그곳 호텔을 쓴다. 나머지 11개팀은 해운대의 호텔을 마련했다. 야구장도 어지간한 지방구장보다 낫다(웃음). SBS스포츠에서 대회 생중계도 맡았다.”

-생소한 여자야구와 어떻게 인연을 시작했나?

“현대 유니콘스(이사)를 그만두고 야구와 인연이 끊어졌다. 현대해상 계열사 대표를 3년 하고 나와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광환 감독이 2006년에 나를 끌어들이었다. ‘여자야구 좀 도와 달라’고. 당시 여자야구가 10여 팀 밖에 없었는데 지금 46개팀 800여명에 달한다. 2007년 연맹 만들고 계속 부회장하다 지난해 대한체육회 정치인 회장 금지 조항으로 어쩔 수 없이 회장이 됐다.”



한국여자야구연맹 정진구 회장은 2016여자야구월드컵 개최를 넘어 성공적 대회 운영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 쏟고 있다.

스포츠동아DB

-국내 개최 대회라 성적 부담감이 크겠다.

“여자야구선수 10명, 소프트볼선수 10명을 합쳐 대표팀을 꾸렸다. 여자야구 선수들이 ‘우리로 왜 20명을 짜지 못했느냐’고 서운해 할 수 있다. 우리 선수들(여자야구연맹 소속 선수들)은 거의 다 직장이 있다. 선생님도 있는데 개학을 하니까 학교에서 (훈련, 대회) 안 보내주는 일도 있다. 그러나 소프트볼 선수들은 실업팀에 소속돼 있어서 협조만 되면 정기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다. 대표팀을 구성해서 훈련이 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대표팀 이광환 감독의 요청이기도 하다.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이 감독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도 하다.”

-조별예선부터 힘난하다.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쿠바가 우리와 같은 조다. 12개팀 3개조로 나눠있는데 여기서 2위까지 총 6개팀이 상위라운드에 올라간다. 현실적으로 쿠바와 베네수엘라를 이기기 쉽지 않다. 소프트볼 선수들이 포함된 혼성팀을 그려서 만들었다. 쿠바, 베네수엘라 중 한 팀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최종 목표는 4강이라고 들었다.

“평가전을 일본의 아사히 트러스트와 했다. 일본 국가대표가 4명이나 있는 실업리그 우승팀이다. 이 팀만 와도 여자야구월드컵 우승 전력이다. 그런 팀과 해서 대표팀이 2-3으로 졌다. 그 경기를 보고 희망이 생겼다.”

-대회 개막이 다가올수록 간절한 마음이 들겠다.

“성공적으로 세계대회를 마쳤으면 좋겠다. 프로야구만 알지 여자야구는 있는지도 모르는데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대한야구협회 관리위원장도 맡고 있는데 소프트볼과 사회인야구도 이 우산 아래 통합될 것이다. 대한야구협회가 여자야구연맹 상급기관인 만큼 결국 소프트볼과 여자야구가 한 식구처럼 움직여야 할 것이다. 여자야구 발전을 위해 국가대표가 성적을 내야 한다는 생각을 여자야구 선수들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축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정진구 한국여자야구연맹 회장

▲생년월일=1948년 5월 18일(대구 출생) ▲출신교=대구 경성중~성남고~단국대 ▲실업선수=기업은행(1968~1969년)~육군(1971~1972년)~기업은행(1973~1977년) ▲경력=프로야구단 OB 베어스 운영부 차장(1985~1988년)~프로야구단 태평양 돌핀스 운영부장(1988~1994년)~프로야구단 태평양 돌핀스 이사(1995년)~프로야구단 현대 유니콘스 이사(1996~1997년)~(주)CNR(현대해상 계열사) 대표이사(1998~2001년)~(주)신의개발 대표이사(2001년~현재) 한국여자야구연맹(WBAK) 부회장(2007~2014년)~제4대 한국여자야구연맹 회장(2015년~)

윤석민에 이어 지크·김진우까지 복귀…

완전체 된 KIA 마운드

KIA 마운드가 9월을 맞아 완전히 재편된다. 부상자들이 차례로 돌아와 ‘완전체’에 가까워졌다. 세루 보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가용 인력이 많아진 건 막판 레이스에 분명한 플러스 요인이다.

일단 시즌 내내 어깨 부상으로 이탈해 있던 에이스 윤석민이 4개월 만에 복귀했다. 30일 광주 SK전에서 3-9로 뒤진 9회초 등판해 1이닝 2안타 1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작구 구속이 여전히 140km 근방을 맴돌았지만, 연속 안타로 맞은 무사 1-2루 위기서 세 타자를 막고 실점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줬다.

경기 전 “구속이 중요한 건 아니다. 유화판(두산) 선수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말한 윤석민은 스스로 이를 입증해냈다. 어깨 통증을 다스리면서 관리와 적절한 긴장감 속에 불펜에서 공을 던진다면, 구위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윤석민에 이어 팔꿈치 통증으로 이탈했던 선발 지크 스프루일과 지난해 팔꿈치 수술을 받았던 김진우가 확대 엔트리 시행에 맞춰 1일 1군에 합류한다. 지크는 지난 14일 광주 한화전에서 5.2이닝 2실점하고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강판됐다. 지크가 빠지면서 KIA는 선발진 운용에 애를 먹었다. 이적생 고효준의 선발진 합류는 이미 예정돼 있었지만, 영건 김윤동까지 재차 선발 기회를

쥐야 했다.

이제 양현종-헨터 노에시-지크로 이어지는 3선발에 나머지 2자리는 다시 경쟁 구도다. 선발 한 자리를 꿰차나 싶었던 홍건희가 8월 들어 부진에 빠지면서서 고효준, 김윤동, 홍건희 3명을 두고 상황에 맞게 선발진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진우까지 퓨처스리그(2군) 점검을 모두 마치고 1군에 돌아온다. 당초 순조롭게 재발 과정을 밟아 후반기 KIA의 ‘히든카드’로 여겨졌으나, 복귀를 앞둔 6월 말 집에서 아이를 돌보다 원 일지발가락이 골절되는 불의의 부상을 입었다.

김기태 감독의 ‘아픈 손가락’이 된 김진우는 30일 합편 LG전에서 2이닝 1안타 무실점하며 마지막 점검을 마쳤다. 원래 5이닝 투구를 준비했으나 급히 계획이 변경됐다. 선발로 투구수를 끌어올리는 과정이었지만, 일단 1군에서 불펜에 합류할 예정이다.

김진우는 현재 팀에 부족한 통릴리프 역할을 해주면서 상황에 맞게 선발로 들어가는 수순을 밟는다. 다시 선발로테이션에 들어가는 지크는 물론, 부상 이전에 충분한 능력을 보여줬던 윤석민과 김진우이기에 지친 KIA 마운드에는 큰 힘이 된다. 뒤늦게 ‘완전체’를 꾸리게 된 KIA가 마운드의 약점을 털어내고 가을야구 티켓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 **광주** |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타격감 찾은 김문호, 비결은 ‘밀어치기’

26일 4안타 이후 나흘만에 또 4안타 경기 전 밀어치기 연습…정확도 UP

롯데 김문호(29·사진)가 살아났다.

김문호는 30일 사직 LG전에서 1번 좌익수로 선발 출장해 5타수 4안타 2득점 1타점 1도루의 맹활약을 펼쳤다. 내용도 알찼다. 2-1로 추격당한 4회 2사 후 출루해 정훈의 2점홈런 때 홈을 밟아 달아나는 점수를 만들었고, 6회에도 상대의 폭투 때 득점에 성공했다. 7회에는 1타점까지 기록했다.

롯데는 김문호의 활약이 어느 때보다 반갑다. 그는 개막 후 두 달간 타율 4할의 맹타를 휘둘렀다. 그러나 6월부터 타격감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한 번 밀어치기 타격감은 좀처럼 올라올 줄 몰랐

다. 후반기에도 마찬가지였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김문호는 풀타임 출장이 올해가 처음이었다. 시즌이 지날수록 체력이 떨어지면서 타격감도 동반 하락했다. 경험이 적은 선수들은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다. 아무리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조언을 들어도 결국 부진은 자기 자신이 탈피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일례로 올 시즌 첫 풀타임 출장을 하고 있는 LG 채은성도 체력이 떨어지면서서 부상이 찾아왔고, 결국 2군행 버스를 타야했다. 그는 복귀 후 “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체력이 떨어질 땐 어떻게 야구를 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다. 올해 경험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다”고 귀띔했다.

김문호도 채은성과 마찬가지였다. 둘 파구가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건너야 했다. 지독한 슬럼프의 끝은 8월 후반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최근 4연속경기 안타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잠실 두산전에서 4안타를 기록했고 30일에도 4안타 경기를 만들었다. 8월 한 달간 타율은 0.311까지 올랐다.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4할대로 복귀한 출루율이다.

김문호가 극심했던 타격부진을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노력’이었다. 그는 4안타를 친 뒤 “경기 전 타격훈련에서 밀어치기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씩 효과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밀어치기 타격은 무게중심을 최대한 뒤쪽에 뒀야 가능하기 때문에 공을 더 오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을 오래 보면 자연스럽게 변화구 대처력도



좋아진다. 덩치치기보다 타구에 힘이 실리는 정도는 약하지만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홈런과 같은 장타를 노리기보다 단타를 주로 치는 김문호의 타격스타일에 밀어치기 훈련은 안성맞춤이었던 셈이다.

물론 만족은 아니다. 김문호는 “4안타를 친 건 했지만 기쁨은 크지 않다. 그동안 팀 승리에 도움이 별로 안돼 동료들에게도 늘 미안했다”며 “현재 타격감은 괜찮다. 이를 잘 유지해서 정규시즌 마지막까지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를 악물었다.

사직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발디리스마저 수술대 삼성 외인선수 잔혹사

삼성 외국인타자 아롬 발디리스(33)가 결국 수술대에 오른다.

삼성 류종일 감독은 31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넥센과 홈경기에서 앞서 “발디리스가 오른쪽 아킬레스건 수술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사실상 시즌 아웃으로 봐야 한다”며 아쉬워했다.

외국인타자 없이 남은 시즌을 치러야 한다. 삼성은 이미 외국인선수 교체카드 2장을 모두 소진했다. 폴린 벨레스터를 아놀드 레온으로, 앨런 웰스터를 요한 플란데로 각각 교체한 바 있다. 기존 외국인선수 중 유일하게 남아있던 발디리스마저 사실상 시즌을 마감해 ‘외국인선수 잔혹사’에 방점을 찍게 됐다.

발디리스는 총액 95만달러를 받고 삼성 유니폼을 입었다. 일본프로야구(NPB)에서 8시즌을 뛴 풍부한 경험과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한 수비력, 장타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올 시즌 1군 44경기에서 타율 0.266(154타수41안

타), 8홈런, 33타점에 그쳤다. 아킬레스건 통증 탓에 제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아킬레스건 통증으로 2차례나 1군 엔트리에서 빠졌고, 결국 8월5일 대구 KIA전을 마지막으로 1군에서 지취를 감졌다.

이후 재활을 통해 통증을 완화하려 했지만, 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구단측에 “미국에서 수술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구단도 이를 받아들였다. 삼성의 잔여경기가 30게임도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시즌 아웃이 맞다. 류 감독은 “아킬레스건 통증 탓에 순발력이 떨어졌고, 전력질주도 되

지 않아 힘들어했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발디리스는) 모든 훈련을 성실하게 소화했던 선수인데, 이렇게 돼 안타깝다”고 했다.

현재 삼성의 1군 엔트리에 포함된 외국인선수는 플란데가 유일하다. 레온은 7월23일 1군에서 말소된 뒤 지취를 감쳤다. 당시 “복귀까지 2~3주가 소요된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아직 2군경기에도 등판하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2016시즌도 얼마 남지 않았다. 사실상 시즌 아웃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고 씁쓸하게 말했다.

대구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